

# 괄목할 양적 팽창 못다른 内實

## 통계로 본 1980년대의 출판

### 10년간 신간 18만4천여종 발행

우리나라의 연간 도서발행 種數는 신간(初版)만 따져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고작 2,3천종에 머물렀었다. 그렇던 것이 7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 79년에 1만종을 돌파한 이래 해마다 꾸준히 신장했는데, 2만종을 넘어선 86년을 고비로 성장율이 둔화되어 88년에는 전년비 0.4%(89종)가 감소되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8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작년까지 71%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表 1 참조)

80년 1월부터 89년 9월말 현재까지의 신간 총발행종수는 184,583종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문학도서를 제외하면 학습참고서(29,660종)와 아동도서(24,994종)가 가장 많아, 이 두가지가 전체의 29.6%를 차지한다. 반면 기초과학 부문인 순수과학도서의 발행은 가장 부진해, 88년의 경우 전체 신간 발행종수의 1.9%(418종)를 차지할 뿐이다. 89년에는 더욱 저조하여 9월말 현재 172종을 발행, 전체의 1% 남짓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출판의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구조적 취약점은 이밖에도 또 있다. 重版을 포함한 총발행종수에서 初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초판 對 중판의 구성비가 80년에는 62 : 38이던 것이 85~87년에는 59 : 41, 88년에는 58 : 42, 89년(9월말)에는 54 : 46으로 초판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중판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적 팽창이라는 겉보기와는 달리, 출판경영의 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않아 신간도서의 개발이 압박을 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판을 포함하는 경우, 총발행종수는 80년의 20,985종에서 88년엔 38,454종으로 83%나 성장한 셈이다.

### 학습참고서 발행부수가 신간의 67% 차지

이같은 구조적 취약점은 발행부수 통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10년간의 도서발행부수 추이는 발행종수 증가율을 훨씬 능가해 초·중판을 포함, 80년의 6천460만부에서 88년엔 1억6천725만부로 약160%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습참고서의 물량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한다.(表 2 참조)

80년대 들어 해마다 학습참고서 발행량이

전체 발행량의 45% 안팎을 차지, 88년엔 46.4%를 점했던 것이 89년(9월말 현재)에는 드디어 과반수線을 돌파하고 있다. 88년의 학습참고서 발행량(7천756만부)은 전국의 초중고생 1인당 8권꼴, 국민 한사람 앞에 1.8권꼴이 돌아가는 숫자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참고서 구입비의 과중한 부담이 일반 가정의 도서구입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학습참고서가 전체 발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초판의 경우 더욱 심하다. 가령 88년의 경우, 초판발행량(1억974만부)의 66.8%(7천331만부), 89년에는 한술 더 떠 초판발행량(9천809만부)의 무려 73.4%(7천197만부)를 학습참고서가 차지하고 있으니 가히 '참고서 왕국'이라 할 만하다.

### 번역도서 줄고, 判型은 대형화 추세

한가지 흥미있는 것은 번역도서가 줄고, 책의 판형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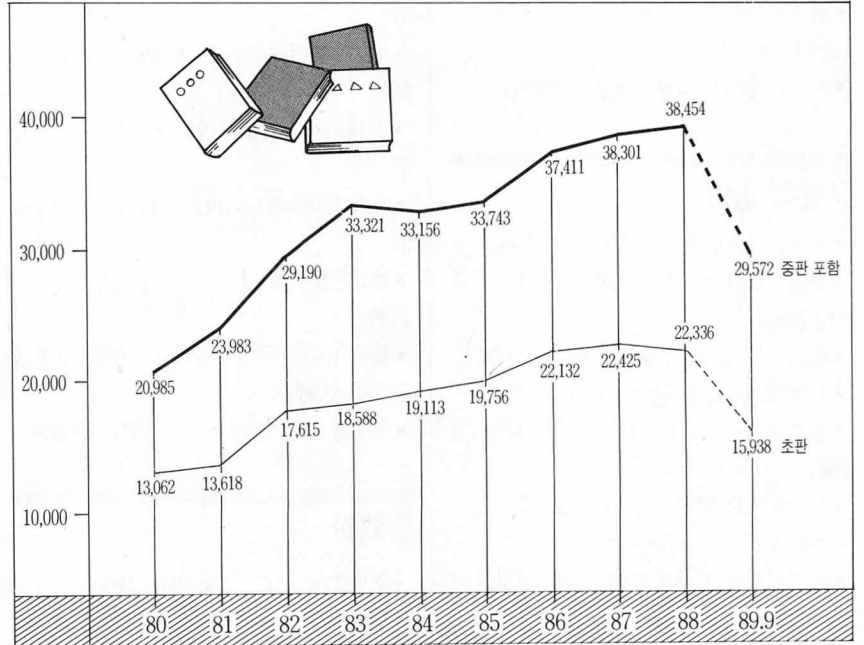
번역도서(초판)는 80년 이후 88년까지 총3,2561종이 발행됐다. 그런데 연도별 발행추이를 보면 80년의 신간발행종수 對比 16.5%에서 해마다 비율이 상승, 85년(25.2%)에 피크를 이루었다가 이후 하향곡선을 그려 88년에는 14.1%로 떨어졌다. 88년의 번역도서 발행종수(3,155종)는 전년에 비해 25.5%(1,080종)나 감소된 숫자이다. 이는 87년의 새 저작권법 시행과 세계저작권협약 가입에 따라 해외저작물의 번역출판에 일정한 제약이 가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表 3 참조)

책의 판형은 80년대 들어 경쟁적으로 커져 일반도서의 경우 4×6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며, 그 대신 국판 또는 신국판으로 확일화했다. 전체적으로는 82년의 경우 국판이 45%, 4×6판 25%, 4×6배판이 15.8%를 차지했던 것이 88년에는 국판이 47.2%, 4×6배판이 22.6%로 늘어난 대신 4×6판은 7.8%로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4×6배판(여성잡지 크기)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림·사진 등으로 책이 비주얼화한 데에도 요인이 있겠지만, 학습참고서나 아동도서의 발행량이 늘어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서 1종당 평균발행부수는 80년의 3,079부에서 88년엔 4,349부로 41.2%나 늘어났다. 그러나 학습참고서(종당 평균 18,202부)를 제외하고 따지면 한 책당 겨우 2,62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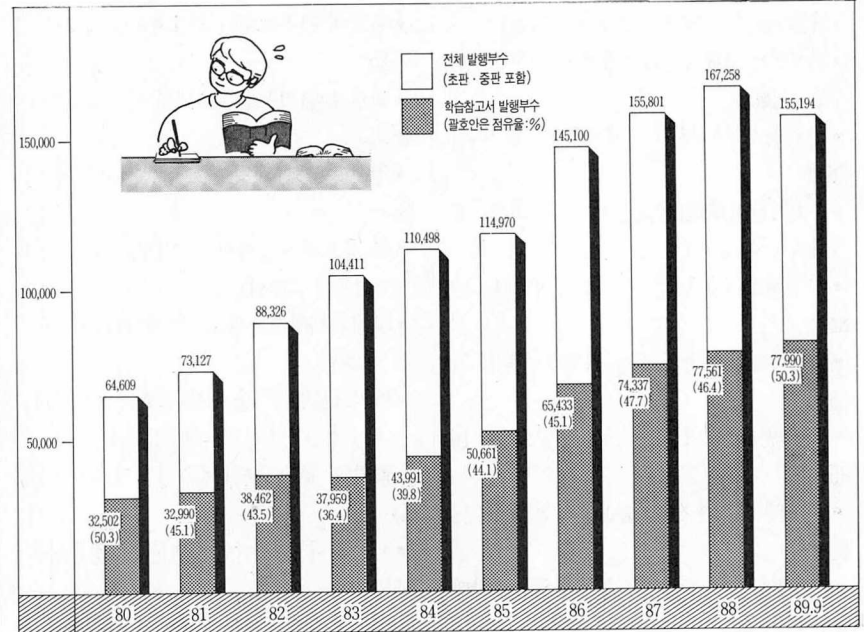
〈표 1〉 최근 10년간 도서발행종수 추이 ('80~'89.9)

단위 : 種



〈표 2〉 최근 10년간 도서발행부수 추이 ('80~'89.9)

단위 : 千部



(88년) 꼴로 발행됐다는 계산이다. 이나마 80년(1,723부)에 비하면 52%나 늘어난 부수이다. 1종당 발행부수가 적다는 것은 곧 책의 권당 제작코스트를 높여 定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저자에게 지불되는 印稅액에도 영향을 미쳐 저술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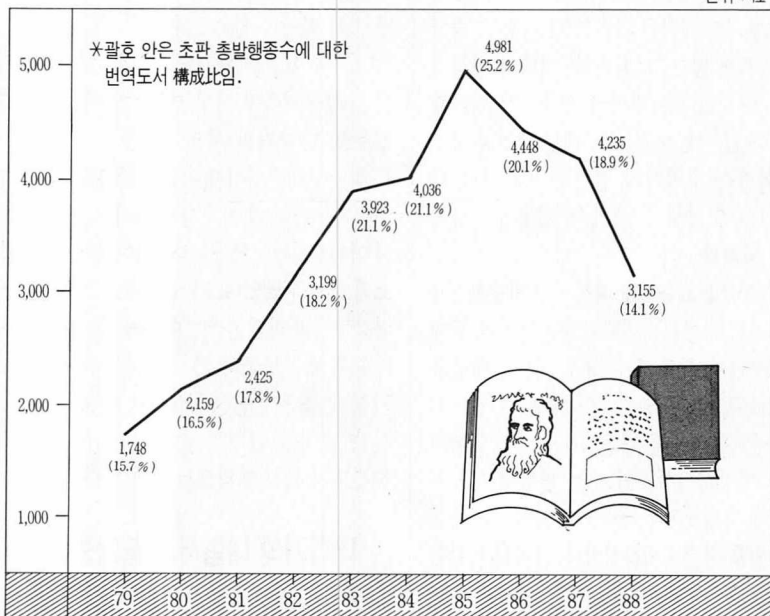
89년(9월말 현재)에는 작년보다 늘어 1종당 평균 5,248부꼴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역시 학습참고서(종당 20,443부)를 제외하면 한 책당 2,997부꼴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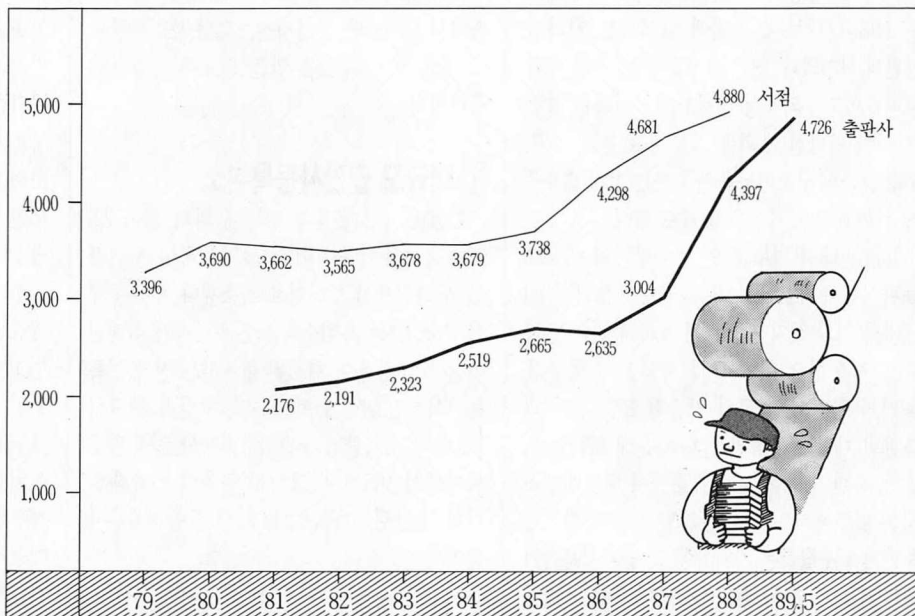
책값의 경우는 어떨까. 1종당 평균 책값은 80년의 3,504원에서 88년엔 5,043원으로 9년 동안에 43.9%가 올라 연평균 5% 미만이 올랐다는 계산이다. 89년(9월말 현재)에는 평균 5,250원으로 작년비 4.1%가 오른 셈이다.

그러나 실제 책값은 대학교재류나 기술도서

〈표3〉 최근 10년간 번역도서 발행추이 (初版)



〈표4〉 출판사 및 서점數 추이 (79~89)



등 학술·전문도서는 5천원~1만원선인데 반해 문학 등 일반도서는 2천원~4천원선으로 평균가격을 밀도는 게 일반적이다. 叢書의 경우 페이지팩이 10달러 안팎, 하드바운드면 20~40달러선이고 포켓북도 4~5달러선이다. 그리고 日書도 최저 8~9백엔에서 2~3천엔씩 하는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책값은 아직 싼 편이다.

**출판사 4,726社...서울에 77% 몰려**

전국의 서점수는 작년말 현재 4,880개로 집계된다. 이는 80년의 3,690개에 비해 32.2%가 늘어난 숫자이지만,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1,114개, 부산에 546개, 대구에 502개, 인천에 199개, 광주에 217개, 대전에 193개로 이들 6대 도시에 전체의 56.8%(2,771개)가 몰려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80년대에 들어 대형서점이 속출한 일이다. 매장면적 1,500평의 초대형서점 교보문고(81.6 개점)를 비롯, 100평 이상의 서점만도 서울에 14개, 지방에 15개가 생겨났다.

서점의 증가추이가 완만한 소용돌음이었던데 비해, 출판사 수는 81년의 2,176개에서 89년(5월 현재)엔 4,726개로 급증, 1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이렇게 출판사 수가 부쩍 늘어난 것은 도표에서 보듯 작금년의 일이다. 87년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2,594개에 불과했던 출판사 수가 그해 10월19일 출판사 신규등록이 개방되면서 88년말까지 1년 남짓 동안에 1,960개가

새로 생겼고, 다시 89년 들어 5월말까지 다섯 달 동안에 417개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전후 20개월 동안에 무려 2,377개가 새로 생겼으니 한달에 평균 119개, 하루 평균 4개꼴로 새로 생겨난 셈이다.(같은 기간에 245개사 폐업)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 무려 3,656개(77.4%)가 집중해 있어 서점수의 3배를 넘는 다(표 5 참조). 이는 문화의 중앙집중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가령, 올 1월부터 9월까지의 도서발행증수(29,572종)의 96.2%, 도서발행부수(1억5천519만부)의 98.8%가 서울에 있는 출판사들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방 출판사들은 고작 1,119중에 192만부를 발행했을 뿐이다.

출판사 수가 4,726개나 된다지만 이들 모두가 제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88년의 경우, 총4,397개 출판사 가운데 절반 이상(50.6%)이 단 한권의 책도 출판하지 않았으며, 또 전체의 28.3%가 1~5종의 책을 내놓고 있다. 반면 50종 이상을 발간한 출판사는 3.9%(179개사)에 불과하다.

하긴 출판사란 어느 제조업이나 마찬가지로 등록 즉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판실적이 없는 출판사가 반수에 이른 것은 신규등록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작금년에 출판사가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배경은 여러가지 풀이가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이들 신진세력의 대거 등장이 앞으로 우리 출판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줄 것이 기대되고 있다.

〈표5〉 전국 출판사 분포도 (89.5 현재)

